

SKE 울산 Complex가 직접 설계/개발한 설비관리 통합/최적화 솔루션

설비 기준정보 관리

공정설비의 Maintainable Item의 정의, 분류 체계, 분류체계 별 속성 정의, 상-하위 Tree 구조(Functional Location)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Asset 중심의 데이터가 수집/관리 가능

변경관리, 구매 등의 절차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속적 현행화 프로세스 구축

설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

일반적인 CMMS 기능은 물론, 설비 검사/진단, 정기보수, 프로젝트, 설계 성과품 관리, 자재관리, PSM 영역 등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

개발 Frame Work를 제공함으로써, 고객의 Needs 에 따른 추가 모듈 구성 용이

협력사 Co-Work 체계 (OCEAN-P)

일협력회사 포탈(OCEAN-Partners)를 활용하여 Work Order의 전달, 정비작업 계획 수립/공유, 설비 주요 정보 및 작업 유의사항 공유, 작업 결과/이력 등록 및 정산 요청 등의 기능 구현

협력회사와의 데이터 공유 체계 구성을 통한 "일 하는 방식의 혁신" - 업무 효율 혁신

사용자 중심의 UI/UX 편의성

공리스트 조회/작성 통합 화면, 사용자 정의 조회 조건 및 필터 정의, 일괄 처리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 구현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화면 구성

MS-Excel 방식의 Spread Sheet, Data Field) 동양적 사고방식/문화를 반영한 UI

데이터 분석/활용 극대화

데이터 분석/활용을 위해서는 Asset 중심의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하며, Sub-Order 기능, W/O 정비이력 작성 기능 등을 활용한 완벽한 데이터 수집 체계 구성

MS Power BI Embedded를 통한 데이터 분석 Visualization 극대화

Reliability, SHE 제고

RSM(Reliability Strategy Management), JRA/J-SA 관리, MoC 프로세스 연동, 예비 리스트 관리 등 공정 신뢰성, 안전 관리 제고 기능 탑재

Smart Work Permit, 작업자 위치/안전 관리, Smart GIS 등 New DT 과제 연동 (진행 중)

01 / DT관점의 설비관리 Trend

01 / EAM 도입의 필요성

03 / OCEAN-H의 탄생 배경

04 / OCEAN-H의 주요 기능

05 / OCEAN-H의 기능적 차별성

06 / OCEAN-H의 기능적 차별성 (세부)

06 / OCEAN-H의 기능적 차별성 (세부)

07 / OCEAN-H 도입의 기대 효과

08 / OCEAN-H Biz. 영역

09 / OCEAN-H Biz. 실적

10 / OCEAN-H Biz. 비전

Digital Twin, Predictive Maintenance, APM 등 설비관리 Digital Transformation의 시작은

명확한 기준정보 관리 및 체계적인 이력 정보의 수집입니다.

OCEAN-H는 SKE 울산 Complex의 60년간의 설비 유지보수 노하우를 집적하여 동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함으로써, 방대한 설비관리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,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.

다가오는 세대교체, 법규 강화 대응, Aging Plant 뿐만 아니라, 안전한 공정 설비 유지/보수를 위해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은 필수이며,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서는 Data가 필수입니다.

"설비 Digital Transformation의 시작은 The K-EAM, OCEAN-H (오션 허브)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"